

2세기경 인도 쿠산왕조의 카니슈카(Kanishka) 왕의 후원으로 주도된 제4차 경전결집의 방대한 기록들이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출간된다. 오슬로대학에 저본이 제공된 '초연(Schoyen) 소장본' 불교 경전(사본)은 2001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대불이 있던 곳에서 300km 북부에 위치한 해발 2000미터 산의 동굴에서 발견된 것. 바미안 사원에서 나온 '두루다라' 불교경전들은 주로 야자나무 잎과 자작나무 껍질, 그리고 소의 양피지로 기록됐다. 경전의 잉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변질되지 않았다. 제4차 결집을 주도한 카니슈카 왕은 불교를 포용했을 뿐만 아니라, 진본으로 간주되는 18부(部)의 경전을 보관했다. 중국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현장 법사는 (대당서역기)에서 '카니슈카 왕이 설법 들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왕궁 어디에서

### 아프간 바미안지역 발굴 1400년전 경전 주석서

## 제4차 결집 필사본 복원 오슬로대

#### 야자잎·양피에 기록... 잉크빛 아직 '생생'

나 비구 스님들을 초청, 설법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스님들의 가르침이 제각기 달라 당황한 카니슈카왕은 파르슈바 스님의 조언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할 결집회의를 구성했다. 다양한 부파불교의 뛰어난 고승들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초청됐다. 결집대회는 거대한 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경음론 삼장을 주석하기 위해 500여 비구 스님들이 참

석했다. 경장, 율장, 논장의 주석은 각각 10만자로 구성되었다. 오슬로대 베이퍼트(Bapat) 교수는 결집대회가 사르바스티바다(Sarvastivada) 학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스타비라바다(Sthaviravada) 학파와 기타 학파들도 교의의 일정 부분을 맡았다고 주장한다. 현장 스님에 따르면, 주석서는 후세인들에 참조하도록 경음론에 새겨져 탑속의 석장사 안에 봉안

되었다. 야자잎으로 쓰여진 주석서들은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 봉안했는데, 이 주석서들은 부파 불교의 차이점을 없애고 비구 승단에 생명력과 단합을 가져왔으며, 산스크리트가 경전을 서술하는 언어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브라아빅(Braarvig) 교수는 "5-6년전 아프가니스탄의 1400여년 된 도서관에 남아있던 경전들을 낙타 등에 싣고 힌두쿠시 지역의 산을 넘어 옮긴 적이 있는데, 이 경전들은 8세기경 파괴된 사원 도서관에서 전해진 고서들이다. 이것은 '불교의 사해(死海) 문서'로 불릴 정도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고문서학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이 주석서들의 연대를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600년 사이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고서들은 한 파키스탄인이 주석서의 일부를 런던의 옥션 하우스(Auction House)로 가져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때, 고문서 수집가인 역만장자 마틴 초연(Martin Choyen)이 고문서 전부를 사들였다. 브라아빅 교수는 "초연 소장본 발간위원회"의 목표는 이미 잘 알려진 (중국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 다른 주석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필사본들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초연 소장본들은 역사적인 흥미거리일 뿐만 아니라, 2000년전 야자나무 잎에 주석을 단 쓴 스님들과의 대화"라고 말했다.



△인도 불교는 2세기 중엽 쿠산왕조의 카니슈카왕의 등장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등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908년 스타인(A.Stein)에 의해 미르지역에서 발굴된 '부처님과 여섯제자' 벽화.



결집이란' 결집(結集)이란 불멸후 불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산실을 막고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경을 외워 정리, 집성하는 것을 뜻한다.

제1회 결집은 석가의 입멸(入滅) 직후 500명의 비구들이 라자그라하교와 칠엽굴(七葉窟)에 모여 아하카사파(Mahkyapa)의 주재로 열렸다. 그 후 석가 입멸 후 100년경에 계율에 대해 이문이 생겼으므로, 바이살리에서 야사(Yasa)가 주재하는 제2차 결집(700명 참석)이 있었다. 제3차 결집은 불멸(佛滅) 후 200년경에 아소카왕 치하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에서 모갈리푸

타 티사의 주재로 열렸다(1000명).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자란드하르(Jarandhar)에서 이뤄진 제4차 결집은 인도 쿠산 왕조의 카니슈카왕 밑에서 파르슈바(Prv:勝尊者), 바수미트라(Vasumitra:世友) 등의 주재하에 이뤄졌다. 카슈미르의 비구 500명이 모여 삼장에 대한 주석을 붙였는데, 그것이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이 되었다.

해외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국대학교 BK21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원(단장: 불교학과 조용길교수)은 인도의 델리대학(2000년), 인도철학회(2001) 등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각 특별로 단기해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제2집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의 페라디니아대학과 '한국 스리랑카간 불교문화사상사 교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스리랑카 불적담사를 실시했다. 이겨룡 교수의 담사기를 4회에 걸쳐 나눠 실는다.



### 이겨룡 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 글 쓰는 순서
- 1 삶과 종교의 일치
  - 2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깨워경(貝葉經)
  - 3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 4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의 삶이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불교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말이기도 하다. 거기 곳곳에 조성된 대형 불상과 비스듬히 지나가다도 잠시 멈추어 서서 예불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나라가 불교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인이라는 것은 스리랑카불교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출가 수행자의 삶은 항상 세간의 삶과 이어져 있다. 이 점은 출가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대개 출가는 어린 시절(8-9세)에 이루어지며, 본인의 분명한 의사와 가족 전체의 합의를 거친 후에 결정된다. 구족계를 받고 완전한 출가승

### 달라이 라마 러 입국거부 비난

#### 러시아 불교협, "순수불교행사... 즉각 허용돼야"

러시아 불교협회는 8월 19일, 러시아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로 톨코, 담바 오세이브, 노르브 샹포 린포체 등 불교 지도자들은 '달라이 라마가 러시아를 방문한 지 10년만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법회를 열 계획이었다'며 '달라이 라마의 입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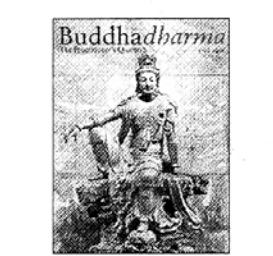
△8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달라이 라마의 입국비자 발급을 촉구하는 러시아 불교협회 지도자들. 왼쪽부터 탈로 톨코, 담바 오세이브, 노르브 샹포 린포체.

#### 아시아 불교평화회의 2003년 2월 라오스에서

아시아불교평화회의(ABCP, Asian Buddhist Conference for Peace) 제 10차 회의가 2003년 2월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열린다. ABCP는 지난 7월 18-20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오는 11월중 라오스에서 준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월 회의에 참석한 ABCP 한국본부 이치란 사무총장은 제 10차 회의의 실무준비위원으로 선정돼, 차기 회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1970년 창립된 아시아불교평화회의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30여 불교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불교국제기구. 한국은 몽골과 수교이후인 94년부터 정식회원국이 됐다.

### 새 불교계간지 '붓다 다르마' 창간

#### 삼발라센터, 한·중·일 등 전세계 기사 다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 본부를 둔 세계적인 불교 수행단체인 삼발라(Shambala)센터 국제본부

가운데 발행해오던 격월간 <삼발라 선(Shambala Sun)>에 이어 새로운 계간 불교잡지 <붓다 다르마(Buddhadharma)>를 8월 15일 창간했다. <삼발라 선>이 그동안 티베트 불교 위주로 보도해 온데 반해 이 잡지는 티베트 불교 이외에도 한국, 중국, 일본, 스리랑카를 비롯한 전세계의 불교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영구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원이게 모든 것을 잃고 싶습니까? 영구적인 삶을 원한다면 영구적인 삶을 만들어주세요. 영구적인 삶은 영구적인 영구적인 삶을 만들어주세요. 영구적인 삶은 영구적인 영구적인 삶을 만들어주세요. 영구적인 삶은 영구적인 영구적인 삶을 만들어주세요.

선재아빠 센터

### 대중과 함께 호흡... 살아 있는 불교

#### 승려들 속가서 가정의례 주관도

관광의 대상으로 '관리' 되고 있을 뿐, 납자(納子)가 없다. 대개는 장엄했던 지난날의 흔적을 구차하게 연명하고 있을 뿐, 생명이 없다. 이 점이 늘 아쉬웠다. 이에 비하여 스리랑카의 절은 살아있다. 사실 스리랑카에는 골라서 답사해야 할 불적이 따로 없다고 해야 한다. 나라 전체가 곧 살아 있는 불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佛齒) 수도 가고 무외산사(無畏山寺)도 가고 유명하다는 갈 비하라(Gal Vihara)의 불상들도 보았지만, 정작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불적은 이곳 불교도들의 삶이 아닌가 한다. 스리랑카의 절은 항상 도시의 중심에 있다. 이것은 스리랑카 사람들

## 육임래정비법책신판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때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색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뭘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국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는지 없었는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는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기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는지 낮는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 등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알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학력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말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 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었는지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체 취직 승진 매해 입시 가솔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즉시완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출인전문천역사용** (부록·설명비디오 포함)  
 ● 육임래정비법 책신판 W1,500,000(휴대용)  
 ● 육임래정비법 책신판 W1,300,000(좌정용)  
 ● 호사 육임강의록 W300,000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 사숙」 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